

기획



<37> 고흥 해돋이길
남포미술관~우두해변



고흥군 영남면 해돋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전경. 해안선을 따라 가는 '해돋이길'의 경우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바다와 울창한 조각 석, 다량인 논·밭이 한데 어울리며 장관을 연출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황금빛 다랑이는·푸르른 가을바다 서로 반갑다 하네

파란 가을 하늘에 하얀색 뭉게구름, 비취색 바다에 황금색 들녘,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초록색 숲, 갈 수목 적어지는 어둠에 살기 파랗한 벌치잡이 어민들의 까만색 뿔그림자까지. 이맘 때 고흥 반도는 거대한 색도화지가 돼 가을 빛을 고스란히 풀어준다.
걷기 좋은 가을, 여행객들이 신발끈을 동여매고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일컫는 고흥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흥군이 주변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해 6개 구간으로 나뉜 추진 중인 '마중길'도 구상만 세워진 상태. 정비 예산도 세워지지 않아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섰다가는 실망하기 쉽다.
변화한 원터나 편의시설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차량 통행이 뜸한 '해돋이길'의 경우 탄성이 절로 나오는 풍광 때문에 '조심스럽게' 걸어볼만 하다.

한적한 시골정취 예술품 감상 재미 쏠쏠
눈길 닿는 곳 액자에 담으면 그대로 풍경화

해돋이길은 고흥군 영남면 남포미술관에서 시작해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이 붙은 해맞이 전망대, 남열해수욕장을 거쳐 영남면 용암마을의 용바위와 우두해수욕장으로 이어진다.
남포미술관은 고흥의 명소다. '가도 가도 천리'라는 그 길을 따라 접하는 한적한 시골 정취와 그곳에서 만나는 작품 때문에 도시 어떤 이름난 미술관보다 재미가 쏠쏠하다.
남포미술관을 나서 한적한 국도를 따라 얼마쯤 걸었을까. 부드러운 구릉 위에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적힌 해맞이 전망대가 나온다. 편의시설이라고는 벤치 몇 개가 고작이지만 전망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올라서면 가슴이 시원하게 뚫린다.
쪽빛 바다에 해안선

의 편린 같은 조각석이 점점 흩뿌려져 액자에 가두어 두면 그것 그대로 그림이 될 정도다.
해돋이 전망대에서 남열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파도가 오르내리듯 출렁거린다. 간혹 지나다니는 차량을 경계하면서 걸어야 하는 탓에 다소 버겁게 느껴진다. 차라리 드라이브 코스로는 손색이 없을 듯 하다.
남열해수욕장은 수영선을 바라보고 있어 일출을 볼 수 있는 해변과 소나무 숲으로 유명하다. 철 지난 고즈넉한 해변 백사장을 걷는 것도 이맘 때에만 해변만 '특해'다. 해변 위 야산에 우주선 모양으로 조성중인 대도·소우대도 등 울창한 숲, 고깃배 등 바다가 내내부터는 빼놓을 수 없는 고흥의 대표적 관광 명소가 될 듯 하다.
우주발사전망대 뒤편으로 우미산(449.7m)에 오르면 앞뒤로 막아선 산줄기가 없어 탁 트인 풍광에 대우대·소우대도 등 울창한 숲, 고깃배 등 바다가 안마당으로 들어온 듯한 장관이 펼쳐진다. 남열해수욕장·사자바위·용바위·보각사 등과 이어지는 우미산



고흥군 영남면의 남포미술관. 한적한 시골 마을 미술관이지만 전국 유명화가들의 전시회가 연중 열리고, 음악회·연극 등의 공연도 잦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등산로는 4.8~7.4km에 걸친 세 개의 코스로 이뤄져 등산객 수가 별로 없고, 찾는 이도 드문 지금과 달리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북적였다든 얘기가.
우미산(449.7m)을 따라 남열·간천·우암·용암 마을 등 지나치는 곳곳에서는 한적한 시골 마을과 거친 바닷가 주민들의 생계를 꾸리는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다.
용암 마을에서 발관사 승천했다는 용바위를 끼고 있는 용암 마을에서 46년째 살고 있는 박진수(68)씨는 "30년 전만 해도 워낙 고기가 많아 마을 앞 바다로 모

든 대형 무역선들로 넘쳐났다"고 회상했다. 사는 주민 수가 별로 없고, 찾는 이도 드문 지금과 달리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북적였다든 얘기가.
용암 마을을 지나 간천·신성마을을 거쳐 점암면 우두해변까지는 전형적인 가을 들녘과 바닷가가 이어진다. 멀리만 고흥,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가져온 죽이 6시 간은 절제된 길. 하지만 이 정도의 거리와 밀접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가을 색다른 풍광을 접할 수 있기 때문 일까. /김진수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including apartments and houses.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including houses and land.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including houses and land.

2011. 10. 24.
광주지방법원 사회보좌관 최용민